

感謝의 글

子息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犠牲도 마다 하지 않으며 子息의 結實을 自身の 일과 같이 기뻐하시고 現在의 健康한 삶이 있게 해주신 年老 하신 어머님께 子息의 道理를 못 다하고 있음을 깊이 뉘우치면서 조그마하나마 이 結實을 드립니다.

恒常 결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助言하며, 언제나 밝은 微笑로 어려움을 잊게 해주며 앞으로 逆境을 함께 헤쳐 나갈 아내에게 그 동안의 뒷바라지를 感謝하는 意味에서 이 論文을 바칩니다.

高等學校 3學年으로 入試準備에 여념이 없지만 이 늦은 時間에도 愛嬌를 부리며 워드 作業을 도와주는 우리 귀여운 딸 志映이와 中學校 3學年이지만 머리만 믿고 努力이 不足하다고 엄마한테 매번 혼나는 무뚝뚝한 우리 玟赫이의 앞날에 榮光이 있기를 祈願하면서 이 글을 씁니다.

論文의 作成過程에서 너무나도 큰 도움을 주시고, 始終一貫 자상하시며 너그러운 指導와 激勵을 아끼지 않으신 李 泰鴻교수님께 머리 숙여 感謝 올리며 내내 健康하시길 祈願합니다. 또 審査過程에서 많은 助言과 指導를 해주신 이 무영 教授님, 그리고 정 현열教授님께 感謝 드립니다.

大學院 生活 동안 함께 同苦同樂하며 어려운 環境에서도 恒常 배움의 姿勢를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며 힘이 되어준 同僚들의 고마움을 잊지 않겠습니다. 그리고 論文의 實驗을 함께하며 많은 問題를 解決해 준 後輩 조 영창씨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겠습니다. 그리고 바쁜 業務 중에서도 勉學의 雰圍氣를 이끌어 준 職場 先後輩 同僚들에게도 感謝 드립니다.

오늘도 생각하며, 깨어 있는 姿勢로 나에게 주어진 일에 最善을 다 할 것이며, 謙遜하며, 貪慾스럽지 않은 삶을 살아 가도록 努力하겠습니다.

1996년 2월

張 正 東